

## Quarterly \_ 2 NEWS LETTER \_ 02 (2011.7)

### 창립총회 및 감사예배.

• 지난 5월17일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내외귀빈 150분을 모시고 푸른나무 창립총회겸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순서를 진행해 주시며 푸른나무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고, 뉴코리아를 향한 비전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기관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고, 선이 북한어린이들과의 1:1 자매결연 식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봉한 주간기독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 **해외센타** : 북경과 하와이에 이어, 상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보스톤에 해외협력센타를 설립하였습니다.
- **방북지원** : 지난 4월과 6월에도 지원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북한방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4월 방북에서는 평양에 위치한 조선장애인보호연맹에 장애인과 원아들을 위한 협력사무소를 개설하여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 **CMS 후원시작** : CMS 로 후원신청해 주신 분들의 출금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CMS 를 위한 금융결제원의 허가등의 일정으로 출금이 늦어지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사업진행



• **1:1 리본 자매 결연** : 지난 창립총회때 북한 어린이들과의 1:1 자매결연을 신청해 주신분들에게, 후원받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카드를 7월 첫주에 발송해 드립니다. 리본 자매결연은 처음으로 북한의 어린이들과 후원자들간의 1:1 자매 결연이며, 여타의 자매결연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아이를 통하여 민족을 마음에 품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운동입니다.



## 공지사항

- 푸른나무의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나 기관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39년간 한국에서 선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킨슬러 목사님 부부는 그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6월30일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선교사부부는 미국에 돌아가셔서 미국장로교에 그간의 사역보고를 마치고, 은퇴하신 후에는 푸른나무의 북한선교사로 파송되어 80년간 해 오신 킨슬러가의 북한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간 두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방북계획은 9월 중순과 10월말, 11월말 입니다. 방북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일정을 참조하시고, 두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나무의 통일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스타코리아와 협력하여 금년도 코스타코리아 (8/22-25, 용인명지대캠퍼스)에 북한session 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문의 : [www.kostakorea.org/](http://www.kostakorea.org/)
- 북한 사역이나 최근 북한의 모습에 관심이 있거나, 후원을 원하시는 기관이나 개인은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요청품목

북한시설에서 부탁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리원애육원 : 주방시설
- 원산농아학교 : 학용품(색연필, 목공예조각도, 소형물펌프), 이미용기구 (가위, 퍼머기구)
- 미림학원 : 지붕수리, 트랙 (관리농장이 몇십리떨어져있어, 농기구와 학생들 수송에 어려움호소)
- 보통강편의 : 세탁소용다리미
- 그외 디지털카메라, 의약품, 학용품등



## 2011년도 4차 방북보고서

북한방문 기간 : 2011. 6. 8 (수) - 2011. 6. 15 (수) (7박8일)

방문자 : 4명 (신영순 선교사, 김인선 사무총장, 고옥희 권사, 산호세 온누리교회, 황요셉 집사, 산호세 온누리교회)

방북 경로: 인천 - 심양 - 평양 - 심양 - 인천.

방문지역: 평양,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통천, 평안남도 향산군(묘향산)

지원물자: 식량 (강냉이), 14인승 차량1대,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설탕가루, 식용유, 의약품, 의류, 빵, 사탕, 초코렛, 솔라후레쉬, 안경제작도구등.

6월 8일 : 일행은 오전6시 인천공항에서 만나 심양으로 행했습니다. 오후 3시 평양행 출발 직전, 심양에서 시작된 장대비와 돌풍이 평양으로 내려가서, 4시간 연착 끝에 밤 11시가 되서야, 15개의 짐을 갖고 평양 해방산호텔에 도착했습니다.

6월 9일 아침에 찾아오신 담당 참사의 환영 인사와 방문 스케줄 토론중, 이번에 계획하였던 성천 농아학교는 도로포장이 아직도 한창이라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음번에 방문하도록 하고 대신 강원도 원산 농아학교 방문과 통천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장애인보호련맹 사무실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에 개소한 민족 장애인, 원아협력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고, 향후 사업협의를 한후, 6월 18일 제 1회 전국 장애인의날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동강 문화센터에서 농아 무용단의 공연을 보며, 사업장 방문을 시작 하였습니다.

여름 무더위속에 모내기, 김매기로 북한정부의 모든 부서 사람들과 시민들이 모두 바쁜중에 있으면서도 저희 일행들의 방문을 고마워 하며, 적극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의 애육원에는 아가씨 재단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대형 캐비닛식 냉장고와, 냉동기, 빨래기계, 선풍기를 구입해서, 장애인보호련맹의 버스에 가득싣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H & G 재단 기금으로는, 육아원에서 오랫동안 요청하던 빨래기계와 냉동기와 선풍기 한대씩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후원금 (에젤선교회및 기관,개인후원) 과 미국장로교의 선교 지원비로 지난 5월에 중국에서 구입하여 기차 화차로 들여보낸 강냉이(옥수수)의 수령을 확인하고,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의 성천 농아학교 정기후원금과 바자회로 준비해 주신 선교비와 기관 후원금으로 현지에서, 설탕, 콩기름, 가루비누, 세수비누등을 구입하여 장애인 특수학교들과 육아원, 애육원, 미림학원등 14곳에 풍성한 축복의 선물들을 전할수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보릿고개 시기이고, 6월말 감자를 캐면 조금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무어라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진실한 감사에, 민족의 고아들과 장애인들의 배고픔에 고난과 아픔을 함께 안고가는 보람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통곡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내주신 후원금들과 기도는 생명을 살리며, 우리 민족의 건강한 미래인 평화 통일로 가는 진정한 준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해북도 육아원분원>



<농아예술단>



<황해북도 애육원>





막히고 답답한 우리조국의 정치 현실에도, 주일 아침 봉수교회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며 현실의 절망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또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인해 오늘도 감사하는 은혜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니다!

이번 방문중에 중요한 사안들은 그동안 킨슬러 선교사님이 해오던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지원사업(기증사업)과 콩우유, 빵공장 사업들을 앞으로 푸른나무재단이 총체적으로 지원하며,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푸른나무의 비전과 향후계획을 듣고, 푸른나무 재단의 창립을 축하하는 격려와 함께 조선 장애자련맹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간 중단되었던 황해북도 황주 중등학교도 앞으로는 푸른나무가 지원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민족 장애인, 원아지원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남과북, 해외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추진과 남과북의 통일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기여할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등의 일을 하기로 의논하였고, 그리스도교련맹 안에도 평화통일과 기독교 교회들의 협력을 위한 일들도 할수있도록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며, 신뢰와 사랑을 기초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것을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를때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행이 가는곳 마다 감사와 따뜻한 민족애를 나누는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원산 농아학교 방문후 강원도 통천 시중호의 바다와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시중호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미림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선 장애자 련맹과의 두번째 회의를 마치고, 여천 제일교회에서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하여 기증해주신 하얀색의 멋진 14인승합차의 사진을 찍고 호텔로 돌아와서, 해동의 책임자와 방문을 마무리 하는 회의를 하면서 나눈 식사가운데 서로를 향한 감사와 격려속에 저희 일행의 7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15일 아침, 민족통일을 위하여 11번째 맞이한 6.15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지면으로 읽으며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나, 평화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평화의 도구로,축복의 통로로, 우리 일행들은 건강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눔의 손길을 멈출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느끼며, 수고해주신 안내와 운전수에게 아쉬운 작별을 하고 9월달 방문을 기약하며 평양을 떠나왔습니다! (이사야 40: 1- 5))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북녘에 형제들의 감사한 마음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주안에서, 신영순 선교사, 김인선 드림.



<안경제작기술전수>



<육아원 원아들>



<원산농아학교 수학교육>



<평양 봉수교회 성가대 >



6월 방북 이모습 저모습



<평양의 호텔에서 지원 품을 시설 별로 분류하는 모습, 각종 의약품과 생필품, 술라후레쉬>



<김일성 종합대학과 실내 수영장, 호텔내의 편의점과 평양 밀국수>



<평양시내의 교통경찰과 빙수 가게, 대동강변의 아침 산책 모습, 조선 노동신문사 당사>



<모내기 모습과 농가,묘향산 국제진선전람관을 전람하는 군인들>



<평양 미림학원과 조선장애자 보호연맹에서의 회의모습, 농가 무용단>



<원산 바닷가와 통천 해변에서의 기도, 시중호에서 건져올린 물고기>



<통천의 해돋이와 새벽에 그물내리는 부부, 북한화폐와 평양순안공항>